

한여름밤 뜨겁게 달군 '아재 파탈'

미국 싱어송라이터 '백' 첫 내한공연 성황

'아재 파탈'(매력적인 아저씨)이라는 신 조어의 정확한 용례를 봤다. 지난 2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무대에 오른 미국 싱어송라이터 백(Beck)을 통해서다. 페도라를 쓴 46세 중년 남성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에 현장에 모인 3000여명 관객이 들쭉였다. 이날 공연은 1994년 데뷔한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백의 첫 내한이다. 현대카드의 23번째 걸쳐프로젝트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어눌한 한국어로 공연의 포문을 연 백은 미국에서 20만 장 이상 판매된 2집 수록곡 '데블스 헤어컷(Devels Haircut)'과 2005년 발표한 '구에로(Guero)' 앨범의 '블랙 탬버린(Black Tambourine)'을 연달아 선보이며 초반부터 내달리기 시작했다. 공연의 절정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우리가 자라는 이야기"라고 소개한 세 번째 곡 '루저(Loser)' 때였다. 1993년 발표와 함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현재까지도 9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 청년들의 송가로 남아있는 노래다. 후렴구 '이입 어 루저 베이비, 소 와이

돈트 유 킬 미(I'm a loser baby, so why don't you kill me)'로 이어지는 관객들의 '배창'이 올림픽홀을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9장의 메이저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매년 얼터너티브 록과 포크, 솔, 힙합 등 장르의 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운드를 선보이는 가수로 유명한 만큼 이날 공연의 분위기 역시 날을 뛰었다. 귀를 때리는 강렬한 드럼 사운드와 로킹한 기타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솔 오브 어 맨(Soul of a man)'에서 짙은 목소리 감성을 자극한 헤비리버비츠 갓 투 런 셉타임즈(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s), 통통거리는 전자음에 맞춰 무대를 공중 뛰어다녔던 '걸(Girl)' 등으로 이어졌다. 관객은 춤 실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음악에 맞춰 어떻게든 몸을 흔드는 빼겨덕거리듯 한 춤사위가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그래미어워드 수상 앨범인 '모닝 페이즈(Morning Phase)' 부어 스타프가 직접 내한에 동원하게 진행한 공연인 만큼 비트와 함께 터지는 조명과 무대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스크린에서 펼쳐지는 환상적



지난 2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무대에 오른 미국 싱어송라이터 백(Beck) 페도라를 쓴 46세 중년 남성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에 현장에 모인 3000여명 관객이 들쭉였다.

인 백그라운드 영상이 공연에 더욱 몰입하게 했다. 안코르 곡 '웨어 이츠 앳(Where It's At)'으로 이날 공연을 마무리한 백은 "오늘 밤 여기서 밤을 새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곧 다시 보자"는 약속과 함께 무대를 뒀다. /김민근기자

세계태권도선수권 조직위, 해외통신사 대상 홍보활동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해외 7개국의 주요통신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참석한 매체로는 러시아 전역 및 세계 주요국의 기사를 전하는 인테르팍스 뉴스 에이전시와 세계 5대 통신사중 하나인 에페 에이전시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몽골, 베트남 국영 뉴스통신사 등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매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내부시설과 시범공연단 공연 등을 취재해갔다. 특히 해외 언론인들은 해외 태권도 선수단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들이 취재했던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에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이신비예바, 러시아 육상 올림픽 출전 불허 CAS비판

러시아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 스타 엘레나 이신비예바(34)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불허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러시아 타임즈 등에 따르면 이신비예바는 21일(현지시간) CAS의 결정에 대해 "육상 경기를 매장시켰다"며 "이것은 정치적 담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CAS는 이신비예바를 포함한 러시아 육상선수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IAAF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러시아 반도핑기구와 공모해 금지약물을 사용했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나는 수십번의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고, 매년 깨끗하게 나왔으며" "육상선수 개개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바다' 부터 'All Mine' 까지... 새 감각으로 무장한 '서머송'

콜(해변의 여인), 유피(바다), 유엔(파도), 듀스(여름 안에서) 등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수로 꼽히는 '서머 송계'의 전성기 강호다. 하지만 해변의 여인이 나온 게 2005년이다. '바다'는 1997년, '파도'는 2001년 곡이다. 아무래도 질릴 때가 됐다. 새로운 여름의 강자가 등장할 때다. 세대교체를 꿈꾸는 차세대 '서머 송' 후보들을 모았다. <시원함에 애절함 한 스펀·허각·정은지의 바다' 두 사람의 소속사 플랜에이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여름 프로젝트다.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이자 솔로가수로 남다른 가창력을 자랑하는 정은지와 보컬리스트 허각의 믿고 듣는 조합이다.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파도 소리와 달콤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로 여름을 떠올리게 해 흥분한 곡이다. <01열차열 걸 그룹의 에어션 가동... f(x)의 'All Mine' 2011년 발표한 '핫 서머(Hot Summer)

로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표현하며 '이 열차열 걸 그룹이 된 f(x)'가 또 하나의 여름 대표곡을 내 놓았다. SM스테이션을 통해 발표한 신곡 '올 마이인(All Mine)'은 마냥 시원하다. 여름엔 역시 EDM이든 f(x)하면 또 EDM이다.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업템포 EDM 장르다. <대놓고 노린 여름 맞이 프로젝트... '썸머일레븐'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서인영, 'SG워너비' 이석훈, '에이핑크' 보미·남주, '다이아' 정채연, 'EXID' LE, 우태윤 양다일, 브라더스, 찬슬러, '미스 에스' 강민희 등 요즘 핫한 가요계의 주자들이 모여 여름 맞이 프로젝트 그룹 '썸머일레븐'을 결성했다. 1996년 나온 코너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섹시 걸 그룹의 '서머 썸' 도전... '스텔라의 핑퐁 울었어' 파격적인 노출과 콘셉트, 섹시한 안무로 명맥을 이어오던 그룹 '스텔라'가 밝고 경쾌한 여름 콘셉트로 돌아 왔다. 'AOA'나 '씨스타' 등 지금의 '서머 퀸'을 만든 프로듀서 겸 작곡가 용감한형제를



등에 얽였다. 신곡 '핑퐁 울었어'는 트랜스 장르와 하우스 리듬을 접목한 트랙에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 샘플을 이용한 인트로가 인상적인 곡이다. /김민근기자

KBO 리그 역대 3번째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가 역대 3번째 최소경기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이날로 전체 일정의 59%를 소화한 KBO 리그는 5개 구장에서 5만2249명의 관중을 동원, 425경기 만에 누적 관중 500만명(504만1017명)을 넘었다. 지난 2012년 382경기, 2011년 382경기에서 이은 역대 3번째 최소 경기다. 10개 구단 체제가 된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425경기 동안 438만549명을 동원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500만 관중은 KBO 리그 통산 10번째다. 1995년 첫 달성 이후 13년 만에 다시 5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2008년 이후 9년 연속이다. 올 시즌 15%의 관중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진된 총 42경기 중 20경기가 무더위가 시작된 6월 이후에 나왔다. 팀 창단 후 처음(단일리그 기준)으로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한 두산은 홈 관중 수에서도 1위(73만5721명)를 차지하며 성적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위를 달리고 있는 NC 홈 관중은 총 32만770명(경기당 평균 825명)으로 가장 적지만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KBO 관계자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시즌 KBO 리그 최초의 800만 관중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